인종 차별의 역사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Miranda Devine 컬럼니스트는 이번 시드니 남부 해변가에서 일어난 인종적 충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인 이유를 제시 했다.

1. John Howard. The Prime Minister let the "racism genie" out of the bottle with his Tampa proclamation: "We will decide who comes to this country and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y come" being extrapolated in Cronulla to, "We will decide who comes to this beach". (존 하워드 수상의 새로운 규범 만드는 인종 차별적인 발언들)

2. The media. certain members of media stands accused of condoning vigilante barbarism and tacitly urging antagonism to young men of Middle Eastern descent last week before Sunday's conflagration in Cronulla. (대중언론의 자극과 부추김)

3. Lack of Law Enforcement. Lenient, left leaning, anti-police magistrates appointed by Carr government have led to a revolving door justice system that furstrates police. (유난히 관대하고 반경찰인 판사들이 만드는 회전문 사법체도)

4. Multiculturalism. This line holds that there is an essential incompatibility of large unassimilated communities of Muslims with Australia's ostensibly Judeo-Christian culture and secular society. (이슬람교 문화와 호주 전통문화의 서로 양보없는 충돌)

5. Testosterone. Young men will continue to behave in violent ways (젊은 남성 청년들의 자연적인 호르몬 과도 현상)

이중에서 우리가 이 사회의 한 소수 민족으로서 관심사는 1 번, 2 번과 4 번이다 그리고 1 번과 2 번 이유는 4 번에서 흘러나온다고 본다. 왜냐하면 어느 한 나라의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인종적인 편견을 이용해 정권을 잡고 유지하려는 정치인은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대에서나 있을 것이며 인종적인 대립에서 일어난 마찰을 과도하게 보도하면서 일을 크게 만들려는 매스컴도 항상 우리와 함께 존재할 것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인종차별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남아프리카의 아파타이드 정책이 현대 역사의 가장 널리 알려진 예이며 그 외에는 미국 남부지방에사 마틴 루터 킹이 이끌었던 흑인들의 불복종 움직임. 그 외의 예로서는 일본에 살던 한국인들, 말레시아의 중국인들, 호주 초창기 시절의 백호주의, 유럽의

유대인과 집시족속 들이 현대 역사의 우리가 알고 있는 유난히 힘든 과정을 거친 소수 민족들의 인종차별적 모습들이다.

위의 사건들 전에는 인류의 역사는 인종 차별의 역사가 아니고 인종 학살의 역사였다. 서로 다른 문화의 민족들이 한 땅에서 서로 동등한 입장으로 존재하기는 쉽지 않았다. 로마나 헬라 민족들은 타민족들을 죽이지 않으면 종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다른 영토로 이주하게 되면 그곳의 원주민을 학살하고 새로 시작하였다.

그도 아니라면 인도처럼 새로운 통치자였던 아리안(Aryan) 민족이나 몽골 민족들은 계급사회를 만들어 자신들의 위치를 압도적으로 우월하게 만들어 타민족들을 지배하였다. 그리고 나치 독일은 2 차 대전쟁 중 인종적인 이데올로기 하나로 수천만명의 유대인과 그외 소수민족을 학살하였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의 호주라는 나라에서도 소수민족이라는 낙오는 치명적인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들 고유의 정체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호주사회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2 세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게 좋을까? 우리의 선택은 간단하다.

하나는 우리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종교적 피난민이며 2 백년 이상 자기들만의 것을 유지하면서 아직도 마차를 타고 다니는 미국동부의 쾌이커교인들이나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들만의 종교를 계속 유지하는 유대인들이 좋은 예들이 될 것이다.

다른 방법은 우리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 최대한 적응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그들의 호주 문화 흡수를 적당히 장려하는 것이다. 다만 자신에 대한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아마 경제적인 방법일 것이다.

내가 이 글은 쓰는 이유는 내가 특별한 답이 있어서는 아니다. 다만 한 사람의 부모로서 여러 선후배들이 같이 고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자는 것이다.

근심을 나누면 절반이요, 기쁨을 나누면 두 배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솔직히 답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기분도 들고 그리고 답이 있더라고 흑백의 답이 아니라 색다른 차원의 답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인종들간의 역사는 소수에게는 확실히 불리했다. 그렇지만 세계화의 움직임이 있고, 지구가 하나의 마을로 변하고 있고, 서로를 존중하는 민주화의 움직임이 확실한 지금, 이 시대는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 그 답은 소수민족으로서 주체적인 자각에 의해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